

나주시, 2회 추경 2천293억 증액 편성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초점 26일 본회의 의결 복지·안전망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편성하고 예산 1조원 시대에 안착한 나주시 살림살이 운영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23일 “최근 1조1천315억원 규모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2천98억원 증가한 1조505억원, 특별회계는 194억원 증가한 810억원이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일반행정·안전 156억원, 문화·관광·교육 139억원, 환경 117억원 사회복지·보건 227억원, 농림 895억원, 교통·지역개발 3

1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축산농가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역점을 뒀다.

특히 기존 5%였던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오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10%로 상향 지원하는 예산 57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집행된 민생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3억원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경영안정대책비, 무기질비료, 농기계면세유,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에는 611억원을 책정했다.

윤 시장이 나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영산강 관광·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공공체육시설 확충(132억원), 일자리 창출·투자기업 지원·에너지친산업(162억원) 등 개발·현안 사업들도 예산안에 두루 반영됐다.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세대·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신규 복지 현안 사업도 눈길을 끈다. ▲소득과 관계없는 나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나주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잡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구 개선·소하천 정비사업(140억원), 도로 개설 확·포장(57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57억원), 생활SOC 건립(14억원) 등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재해 복구와 각종 생활SOC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 삶의 질 개선, 전 세대·계층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현 기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나주시, ‘지속가능 농업 살맛나는 농촌’ 실현

윤병태 나주시장이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나주시는 23일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과 지역 청년농업인 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 청년농업인이 생산·가공한 농산물 품목 별 소개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정책 지원 건의 등 자유로운 대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년농업단체인 청년4-H연합회 최창순 회장, 김중윤 전 회장 등 청년 농업인 10명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최창순 청년4-H연합회장과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농촌 인력난, 영농 기반 조성사업,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승용 실장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경력, 기반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눠 맞춤형 정책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주지역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수는 전체 농업인(1만9천975명)의 3.8%인 763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기반, 영농 정착금 지원(최대 100만원)을 비롯해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가업승계농 육성, 현장지원단 운영,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청년창업학과 농업인대학, 영농기반 조성, 농기계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축인 청년농업인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영농 정착 지원과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 소통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영농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과 농업 생산·가공·마케팅 개발 지원 및 소득화를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정종현 기자



구복규 군수, 고인돌유적지 현장 방문

구복규 화순군수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대를 방문, 주차장 등 관광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구 군수는 꽃축제 추진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규모, 위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군, 마을활동가 20명 모집

화순군은 23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마을 활동에 관심 있는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화순읍 충의로 100)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 마을활동가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80% 이상 참여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 소통 촉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 061-373-3438)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대회’ 성료

8일간 1천300여명 참가

화순군이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등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8일 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 중·고등부 110개 팀 선수 1천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 2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개인전은 남녀단식과 남녀복식, 혼합복식으로 펼쳐졌다.

화순 지역 3개 팀(화순고, 전남기술과학교, 화순중)이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화순중 이지호 선수와 정다환 선수는 남자복식에서 1위에 올랐다.

전남기술과학교 박성주 선수는 남자단식에서 1위를, 정민재 선수는 남자단식에서 3위를 차지했다.

화순고 정다연 선수와 전남기술과학교 김하빈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다.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군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전문성 높여 민원 만족도 제고

화순군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청원경찰·공무직 인사발령 당시 전문적인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할 청원경찰을 균형 민원실에 2명,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1명 배치했다.

청원경찰을 민원 안내 도우미 전담 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지속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안내 도우미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팩스 사용법을 알려주고 부서 위치와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한다.

안내 도우미는 민원실이나 청사 방문이 처음이거나 민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 행정을 볼 수 있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체감도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 추진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2차 포럼

나주시가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두 번째 포럼 자리를 가졌다.

나주시는 23일 오후 3시 청년센터에서 시민, 전문가, 사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극장 문화재생 토크: Vol.2 문화재생과 지역상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회(나주극장 문화재생의 출발)에 이어 2회 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과 관련해 지역 문화산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지역사회와 문화재생 간 상생과 확

장 가능성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했다.

포럼 1부는 서울대공원장, 한국관광공사 심사위원 등 문화기획전문가로 활동해온 안영호 안영소사이어터 대표가 ‘문화재생-조치된 한림제지공상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오희영 안영다방 대표의 진행으로 김양순(협동조합성안사람들), 나안미(여행캠프협동조합), 남우진(북합공간 3917마중), 임재환(나나노플래닝) 대표들이 참석해 문화재생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